

# 답가스라



**[해제]**

<답가사라>라는 부모의 은혜에 보답한다는 뜻을 담은 여성가사이다. 한지 두루마리에 연속된 줄글형태로 필사되어 있다. 난독에 가까운 필체라 낱말을 정확하게 살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이는 후일 좀더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작자는 미상이며, 필사시기 작품 말미에 元月이라 한 것으로 보아 어느 해 정월이라 추정한다. 현재 한국가사문학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작품은 <사친가(思親歌)>류와 비슷하며, 내용과 구성 등을 살펴볼 때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 있다. 작품 마지막 부분에 필사자가 ‘등서’했다는 것으로 보아 다른 작품을 보고 옮겨적은 것으로 보인다. 작품 내용은 시집간 딸이 혼례를 올렸을 당시를 생각하면서 혼례과정을 치러야 부모님의 처지를 생각하며 노래하고 있다. 혼례 당시에는 몰랐지만 시간이 흘러 그때 일을 생각하니 부모님의 은혜가 새삼스럽게 높고 깊음을 인식하고 있다. 비교적 4음보의 울격을 지키고 있는 정격가사이며, 규방가사로 분류할 수 있다.

**[원문]**

답가사라

가소롭다 여즈유흥 가소롭드 못홀너라  
 부모싱각 못홀어라 평칭의 무슴저로  
 여즈몸이 되어나셔 부모형지 멀니하고  
 심민부지 나무집의 이십연 출가하여  
 말니천의 타국갓치 부모동기 기린난고  
 부모은득 싱각하니 턱손이 가무랍고  
 하히가 여를지라  
 금옥갓탄 이의여식 삼연히리 스라놀지  
 아들쓰리 분별업서 듀옥갓치 스랑하고  
 치우면 채울셔라 드우면 드울셔라  
 만단슈견 골물둥도 좀시도 이질손양  
 책푼척이 모아니여 철철의복 곡기지어  
 몸간슈 전이하고 육칠식을 스르날지  
 비든명듀 침지질과 마포무명 물니지을  
 굽기굽기 가라치고 지역이 연즈밧침  
 편지보고 척씨기며 즈즈니 가라칠시  
 요요촌 이니지도 선망후실 후견마난  
 귀밧핀분 안이치고 허답갓치 가라치니  
 좀을조금 늦기들며 원망느기 득라와셔  
 슈독도 만쳐보며 머리집고 후난마리  
 어디가 압푸난 안기운니 불평하여  
 밥을조금 들먹어도 어디가 압푸난야  
 근심하여 후난말숨 이리되여 그려후나  
 음식조촉 안니먹고 기우심육 스라나니  
 부모은득 등흔듀을 비로소 알견이와

갑기을 심각하니 호천망국 안일언기  
복회씨 가라친법 만복근원 씨가이겨  
조식스통 우리부모 어진스회 가리니고  
좌우로 구흔하니 청도미탕 막씨문별도  
묘면이와  
부모도 갖기잇고 낭군도 둔슈하드  
동기숙동 변화하고 빅스가구비출  
청흔혀흔 왕니흔후 모월모일 턱일하여  
조정인난 우리부모 호인안목 법이이서  
진진치복 친흔홀디 명듀비든 오양목의  
양금오디 턱영반송기며 바든안중  
호흔말기 식식이드 초려니니 녁넉즌은  
우리술님 부모간중 오죽하리  
명화되기 초예홀디 명화송초 버리노코  
청홍식년 하여 흡흔듀 가득부어  
빅연고빅 후서군 보오니 선관이오  
문의하강하와 동방화초 분벽안의 오룬이  
영농하여 송송봉황 오동가지 녁노난닷  
노소변직 치하하나 몇초결 을하여슈  
응치못고 법이니 무송하와 숨일턱송  
홀홀하드 송답이농 중홀시고 문갑중농  
반드지며 포빅금슈 식식하다  
송의도 녁죽이요 하의도 녁득이라  
디발듯단 요양디와 은환지환 갖초잇고  
운혀팅혀 가조도드  
안목은 식식하이 남보기스 조견이와  
칠칠로 못흔침조 가지지침 선골물  
부모경정 안일년가  
춘복하복 하인갈지 송하의복 죽죽니  
갖초초  
소듀약듀 안듀등물 갖초초 보닉즈니  
그걱정 으죽하며 지힉숨힉 청하올디  
소을좁고 기을좁아 숨춘중속 드청하니  
날마다 잔치같고 달마다 회초같다  
세월니 여류하여 칠팔식을 지닉오니  
신힉하드 하닌오고 날바듯드 편지오닉  
이법을 누라셔 면홀손  
안신힉기을 치송홀지 비든오시 열득이요

무명오시 후득이라 가늌되니 품아시오  
 우리어마 나을길너 퍽이박기 출가하여  
 흘말도 만히이셔 소희설화 ㄷ뵓하고  
 나지며 안조볼가 밤이면 중등하니  
 슈션하고 문뎡하드 줌시라도 여기업셔  
 말흔번 못히보고 몽둥갓치 지늌드가  
 신흥나리 듯치구나 열두바리 도복마와  
 교마하인 등뎡하고 하인치송 분뎡하드  
 쌍쌍흔임 교저비와 후비하닌 영을바드  
 드려셔며 짐바리를 초려니 교마말도  
 ㄷ소흔드 옥빈흥안 고운단중 가마안의  
 드려가니 방방누 슈분성적 간뎡업드  
 어린동심 층층우름 구억구억 통곡하드  
 늘근중 절문중 목노코 통곡하드  
 형지속질 ㄷ족드른 줄가락고 신큐하드  
 가마안의 드려안조 옛니을 신큐하니  
 구곡간중 ㄷ녹나는드  
 우리어마 나을키와 밤이면 연침하고  
 슈족갓치 여기시고 뎡옥갓치 스랑하며  
 줌시르도 안잇더니 퍽니타향 면면길의  
 날소니고 어이홀고 닌만지든니 가르력드  
 설거지 덤싯든니 방안은 빈방이요  
 닌든니든 화초밭티 지초가모도 업셔지며  
 밤이며 말소리 귀의칭칭 나디며  
 흥동거지 눈의숨숨 그간중 그회포을  
 뉘가이셔 위로홀고  
 방안의 안진듯 고정구지 역하난듯  
 ㄷ눈의 숨숨 곁여잇고 괴의칭칭  
 드릴실말 흘슈난 업견이와  
 경기하여 하신말씀 우지말고 즐가거라  
 닌안무스 흔니잇나  
 아부임은 승각<sup>α</sup> 층층시하 조흔집의  
 퍽향아이 마조가니 무스흔니 쏘인난야  
 친정을 신큐말고 구고신큐 호양하라  
 부모님닉 덕획으로 스롱시리 보시나마  
 방심업시 하지마르  
 가중은 소천이르 가중의 하난이을  
 거역말고 시형하라 친정신큐 조조하며

기가논의 느난이라 송직쏟나 오실씨의  
소리나기 슬혀마꺾 응을보고 윗난난이라  
흔님연 도라셜디 슝똥을 부디마꺾  
고이ㅎ꺾 ㅎ나이꺾 친정편지 보닐적의  
존스똥 부디마꺾 나무논의 드릴시라  
유슈석돌 줌관가며 근횡오며 불기지라  
시딕이 닉집인니 친정을 싱각말고  
구고슬ㅎ 호양ㅎ라 인고ㅎ닌 직촉ㅎ며  
빅말등의 가마실고 탄탄디로 나셔가니  
싱각ㅎ든 우리집은 일조의 이별ㅎ고  
싱면부지 아무집의 닉집갓치 가난구나  
만이리 ㄷㄷ르니 시딕ㅎ인 현신ㅎ며  
녹의홍식 빈지노라 손천돈 고의셜고  
스름도 낫썰도ㄷ 유슈밥밥 흐른눈물  
두손으로 정히쑤고 시정신이 말게난ㄷ  
평싱의 못본스름 누어동화 ㅎ든말가  
평싱의 못본집의 조식을 시어ㅎ든말가  
어화여 횡가통통 만첩소히 ㄷ못ㅎ노라  
괴희원월 ㅊ스일의 박소제 등셔ㅎ오니 보시니니 놀어보시압

[현대역]

답가사라

가소롭다 여자유행 가소롭다 못할러라  
부모생각 못할러라 평생의 무슨죄로  
여자몸이 되어나서 부모형제 멀리하고  
생면부지 남의집에 이십년 출가하여  
만리천리 타국같이 부모동기 기렸는고  
부모은덕 생각하니 태산이 가벼웁고  
하해가 열을지라  
금옥같은 이의여식 삼년해를 살아날제  
아들딸이 분별없어 주옥같이 사랑하고  
추우면 추울세라 더우면 더울세라  
만단수심1 골몰중도 잠시도 잊을손양  
척푼척이 모아내여 철철의복 곡기2지어  
몸간수 편이하고 육칠세를 살아날지  
받은명주 침제질과 마포무명 물레지을  
급게급게 가르치고 지역이 연자받침  
편지보고 책씨가며 자자이 가르칠새  
요도찬 이내지도 선망후실 하건마는  
귀밀한번 아니치고 현답3같이 가르치네  
잠을조금 늦게들며 원망누이 돌아와서  
건축도 만져보며 머리짚고 하는말이  
어디가 아픈가 안기운이 불평하여  
밥을조금 덜먹어도 어디가 아프는가  
근심하여 하는말씀 이리되어 그러하나  
음식조차 아니먹고 겨우십육 살아나니  
부모은덕 중한줄을 비로소 알거니와  
값기를 생각하니 호천망극4 아닐런지  
복희씨5 가르친법 만복근원6 씨가되어  
자식사통 우리부모 어진사위 가려내고  
좌우로 구흔하니 정도에는 박씨문벌도  
줄거니와  
부모도 같이있고 낭군도 준수7하다  
동기기른 변화8하고 백사9가 구비10하다  
청흔허흔11 왕래한후 모월모일 택일하여  
자정12있는 우리부모 호인안목 법이있어  
진진최복 친훈할제 명주비단 오양목13의

양금오대 태영 반상기며 받은안장  
호한말기 색색이도 차려내니 넉넉잡은  
우리살림 부모간장 오죽하리  
영화대기 초례14할제 만화방초15 벌여놓고  
청흥색년 하여 합환주16 가득부어  
백년고배 후서군 보오니 선관이오  
군의하강하와 동방화축17 분벽18안에 오르니  
영롱하여 쌍쌍봉황 오동가지 넘노난다  
노소변객 치하19하나 몇차결 을하여수  
응치못고20 법이니 무상하여 삼일태상  
홀홀하다 상담이농 장할시고 문갑장농  
반달이며 포백금수21 색색하다  
상의도 넉줄이요 하의도 넉줄이라  
대발같은 요양대와 은환22지환23 갖춰있고  
운허맹허 가졌도다  
안목은 색색하이 남보기사 좋거니와  
칠칠로 끝한침자 가지지 침선골물  
부모정성 아닐런가  
춘복하복 하인갈지 상하의복 줄줄이  
갖춰갖춰  
손기약주 안주등물 갖춰서 보내자니  
그걱정 오죽하며 재행삼행 청하올때  
소를잡고 개를잡아 삼촌종숙 다청하니  
날마다 잔치같고 달마다 회초같다  
세월이 여유하여 칠팔색을 지내오니  
신행한다 하인오고 날받았다 편지오네  
이법을 뉘라서 면할손가  
안신행기를 치송24할제 비단옷이 열줄이요  
무명옷이 후득이라 가내덕이 품아시오  
우리엄마 나를길러 백리밖에 출가하여  
할말도 많이있어 소회설화25 다뉘하고  
낮이면 앉아볼까 밤이면 장등26하니  
수선27하고 분주28하다 잠시라도 여가없어  
말한번 못해보고 몽중같이 지내다가  
신행날이 닷쳤구나  
열두마리 도복마와 교마하인 등대하고  
하인치송 분주하다 쌍쌍한임  
교래배와 후배하인 영을받아 들어서며

짐바리를 달려니 교마말도 다소한다  
옥빈홍안 고운단장 가마안에 들어가니  
방방누 수분성적 간데없는 어린동생  
층층울음 꾸역꾸역 통곡한다  
늙은중 젊은중 목놓고 통곡한다  
형제숙질 가족들은 잘가라고 생별한다  
가마안에 들어앉아 옛일을 생각하니  
구곡간장29 다녹아난다  
우리엄마 나를키워 밤이면 연침30하고  
수족같이 여기시고 주옥같이 사랑하며  
잠시라도 안있더니 백리타향 먼먼길에의  
날보내고 어이할꼬 매만지더니 가르렀다  
설거지 짐짓드니 방안은 빈방이요  
내다니던 화초밭에 지초가 모두없어지며  
밤이면 말소리 귀에쟁쟁 나며  
행동거지 눈에삼삼 그간장 그회포를  
뉘가있어 위로할꼬  
방안의 앉은듯 고정구 기억하는듯  
다눈에 삼삼 걸려있고 귀에쟁쟁  
들으실말 할수는 없거니와  
경계31하여 하신말씀 울지말고 잘가거라  
내안무슨 한이있나  
아버님은 상객가고 층층시하32 좋은집의  
백향아이 맞아가니 무슨한이 또있느냐  
친정을 생각말고 구고슬하33 호양34하라  
부모님네 덕택으로 사랑스레 보시나마  
방심없시 하지마라  
가장은 소천35이라 가정의 하는일을  
거역말고 시행하라 친정생각 자주하며  
시가36눈의 나느니라 상객뒀나 오실때에  
소리나게 슬퍼마라 흥을보고 웃느니라  
한님연 돌아설때 사담37을 부디마라  
괴이하다 하나이라 친정편지 보낼적에  
잔사담38 부디마라 남의눈의 들올세라  
우수석달 잠깐가며 근행39오며 불기지라  
시택이 내집이니 친정을 생각말고  
구고슬하 호양하라 인고하는 재촉하며  
백말등의 가마실고 탄탄대로 나서가니



생각하던 우리집을 일조의40 이별하고  
생면부지 남의집에 내집같이 가는구나  
만이리 다다르니 시댁하인 현신하며  
녹의홍색 반기노라 사천돈 고의설고  
사람도 나섰도다 유수밥밥 흐른눈물  
두손으로 정히떡고 새정신이 맑게난다  
평생의 못본사람 누워담화 하단말가  
평생의 못본집의 소식을 싫어하단말가  
어화여 행가통통 만첩소회41 다못하노라  
그해원월42 십사일에 박소제 등서43하오니  
보시니니 늘어보시압

[각주]

- 1) 만단수심(萬端愁心) : 온갖 근심걱정.
- 2) 곡기(穀氣) : 곡식으로 만든 적은 분량의 음식.
- 3) 현답(賢答) : 현명한 답변.
- 4) 호천망극(昊天罔極) : 아버지의 은혜가 넓고 큰 하늘과 같이 다함이 없음을 이르는 말.
- 5) 복희씨(伏羲氏) : 중국 고대 전설상의 제왕이며 삼황오제의 우두머리이다. 팔괘(八卦)를 처음으로 만들고 그물을 고안하여 고기잡이를 가르쳤다고 한다.
- 6) 만복근원(萬福根源) : 온갖 복이 시작되는 곳.
- 7) 준수(俊秀) : 재주와 슬기, 풍채가 빼어나다.
- 8) 번화(繁華) : 얼굴에 달기(達氣)가 있고 화려하다.
- 9) 백사(百事) : 온갖 모든 일.
- 10) 구비(具備) : 있어야 할 것을 빠짐없이 다 갖추.
- 11) 청혼허혼(請婚許婚) : 결혼을 청하고 허락함.
- 12) 자정(慈情) : 어머니의 정(情). 부모의 정.
- 13) 오양목 : 옥양목(玉洋木)이라 하며 생목보다 발이 고운 무명천이다.
- 14) 초례(醮禮) : 전통적으로 치르는 혼례식.
- 15) 만화방초(萬花芳草) : 온갖 꽃과 향기로운 풀.
- 16) 합환주(合歡酒) : 전통 혼례식에서 신랑 신부가 서로 잔을 바꾸어 마시는 술.
- 17) 동방화촉(洞房華燭) : 동방에 비치는 환한 촛불이라는 뜻으로 혼례를 치르고 나서 첫날밤에 신랑이 신부 방에서 자는 의식을 이르는 말.
- 18) 분벽(粉壁) : 하얗게 꾸민 벽.
- 19) 치하(致賀) : 남이 한 일에 대하여 고마움이나 칭찬의 뜻을 표시함.
- 20) 응치못고 : 응하지 못하고.
- 21) 포백금수(布帛錦繡) : 수를 놓은 비단과 베.
- 22) 은환(銀環) : 은가락지.
- 23) 지환(指環) : 가락지.
- 24) 치송(治送) : 짐을 챙겨서 길을 떠나보냄.
- 25) 소회설화(所懷屑話) : 마음 속의 자질구레한 이야기.
- 26) 장등(長燈) : 오래도록 불을 밝힘.
- 27) 수선 : 정신이 어지럽게 떠들어 대는 듯하다. 수선스럽다.
- 28) 분주(奔走) : 몹시 바쁘게 뛰어다님.
- 29) 구곡간장(九曲肝腸) : 굽이굽이 서린 창자라는 뜻으로 깊은 마음속 또는 시름이 쌓인 마음속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30) 연침(聯枕) : 같이 한이불을 덮다.
- 31) 경계(警戒) : 옳지 않은 일이나 잘못된 일들을 하지 않도록 타일러서 주의하게 함.
- 32) 층층시하(層層侍下) : 부모, 조부모 등의 어른들을 모시고 사는 처지.
- 33) 구고슬하(舅姑膝下) : 시부모님의 보호 아래.
- 34) 호양(護養) : 부모님을 정성껏 모심.

- 35) 소천(所天) : 아내가 남편을 이르는 말.
- 36) 시가(媿家) : 시댁. 시집.
- 37) 사담(私談) : 남몰래 흥을 보며 하는 이야기.
- 38) 잔사담 : 자질구레한 사담.
- 39) 근행(覲行) : 시집간 딸이나 객지에 사는 자식들이 본가에 아버이를 뵈러 다님.
- 40) 일조(一朝)에 : 하루 아침에.
- 41) 만첩소회(萬疊所懷) : 마음 속에 겹겹이 쌓인 이야기.
- 42) 원월(元月) : 정월(正月)을 다르게 부르는 말.
- 43) 등서(騰書) : 원본에서 베껴 옮김.

본자료는 행정안정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DB사업으로 구축된 재산입니다.  
담양군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이 문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